KBS NEWS

Q

If a wildfire occurs, promptly get away from the fire and keep going to windward to a safe place.



👫 재난포털

ON AIR *

뉴스 9









고화질

0 <

표준화질

자동재생 OFF

키보드 컨트롤 안내





[앵커]

손흥민이 두 경기 연속골을 터트리며 토트넘의 가파른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콘테 감독 부임 이후 손흥민이 공격 전술의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박주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반 10분 모라의 골을 도운 손흥민.

날카로운 코너킥으로 팀의 두 번째 골을 이끌어낸 뒤 후반 32분 직접 골망을 흔들며 시즌 7호 골 을 달성했습니다.

사흘 전 브렌트포드 전처럼 토트넘의 모든 골에 관여했습니다.

손흥민은 무엇보다 신임 콘테 감독의 전술에 잘 녹아들고 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대선 투표율 오후 5시 현재 73.6%… 19대 보다 3.5%p↑

이재명 후보 자택, 지금 상황은?

윤석열 후보 자택, 지금 상황은?

'NLL 월선' 북한 선원 7명, 북으로 송환 …"항로 착오로 넘어와"





많이 본 뉴스

- 1 대선 투표율 오후 5시 현재 73.6%…19대 보다 3.5%p↑
- 2 이 "수천, 수백 표로 결과가 달라져" 윤 "투 표율 기대에 못미쳐"
- 3 "경북·강원 산불 났는데"···'제주들불축제' 어쩌나?
- 4 [특보] 이 시각 산불 상황과 바람 전망
- 5 '아이폰SE3'·'아이폰13 그린' 공개…시장 평가는?
- 6 'NLL 월선' 북한 선원 7명, 북으로 송 환…"항로 착오로 넘어와"

콘테의 3-4-3전술에서 윙백이 전방 높이 올라오기 때문에, 측면 공격수 손흥민은 중앙에서 더 많은 골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분석.

노리치전 움직임을 분석해보면 기존 측면보다 중앙이 강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토트넘/3일 인터뷰 : "콘테 감독님은 선수들이 어느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할지 정확히 알려주시는데 그런 구체적인 요구들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첼시 아자르, 인터밀란 루카쿠 등 지금까지 콘테 감독은 슛과 패스가 동시에 뛰어난 선수를 선호 해왔는데 토트넘에선 손흥민이 이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한준희/KBS 해설위원 : "콘테 감독 체제에서의 윙 포워드들은 중앙과 측면을 모두 아우르면 서 찬스 메이커 역할도 수행해야 하는데 현재 팀에서는 패스 감각이 가장 좋은 손흥민 선수가 이 역할에 제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경기 연속 골로 득점 행진에 다시 시동을 건 손흥민이 뜨거운 12월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영상편집:권혁락/영상 그래픽:김정현



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해 대선 관련한 다양한 뉴스 콘텐츠를 KBS 대선 특집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박주미기자 jjum@kbs.co.kr 박주미 기자의 기사 모음 ▶

뉴스 9 전체보기



오늘의 HOT클릭!



절반만 찍히거나 겹쳐 찍었어 도…선관위 "모두 유효표"



[20대 대선 인증샷] 내 손으로 신규 확진 34만여 명 역대 최 뽑는 대통령 "투표했어요~"



다…누적 500만 명 넘어서



"경북·강원 산불 났는 데"…'제주들불축제' 어쩌 나?

'아이폰SE3'·'아이폰13 그린' 공개…시장 평가는? 울진·삼척 산불 엿새째…전체 진화율 70%

[영상] "특정 후보 연상시킨다?" 투표 도장까지 바꾼 사연 피치, 러시아 신용등급 C로 강등…"국가부도 임박" 중국 매체, 한국 대선 각별한 관심…"누가 이기든 한중관계… '정확하고 재미있게'…미리 보는 KBS 개표방송

지역뉴스

 부산
 울산
 창원
 진주
 대구
 안동
 포항
 광주
 목포

 순천
 전주
 대전
 청주
 충주
 춘천
 강릉
 원주
 제주

뉴스 아카이브 ▼

KBS소개 ▲ 시청자권익센터 사이버 감사실 광고 이용약관 법적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 KBS N 채널 ▲ KBS WORLD ▲

KBS / 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여의도동) / 대표전화 02-781-1000 / 기사배열 책임자,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은정 KBS뉴스 인터넷 서비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 / 시청자상담실 02-781-1000 / 등록번호 서울 자00297 (2010년 6월 23일)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